

420장 - 너 성결키 위해

- (1) 너 성결키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안에 있어 늘 성경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 (2) 너 성결키 위해 네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네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 (3) 너 성결키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 (4) 너 성결키 위해 늘 기도하며 네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304장 -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 (1)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 (2)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의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 (3)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 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 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후렴)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9월 26일(토) 기도 담당 : 김동남 집사

2020년 9월 25일(금)

이른아침예배

인도 : 엄재광 목사

예배를 여는말 인 도 자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찬 송 420장 다 같 이
기 도 이철용 집사
성 경 봉 독 로마서 9장 14~16, 20~21절 인 도 자
설 교 『하나님의 주권』 엄재광 목사
기 도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다 같 이
찬 송 304장 다 같 이
축 도 설 교 자

☞ 오늘의 말씀 < 로마서 9장 14~16, 20~21절 >

- 14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15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16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달음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20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21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 참고구절

○이사야 55장 8절

8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고린도전서 1장 25절

25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20년 9월 25일(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도 주 은혜 가운데 쉼을 누리게 하시고, 이 아침 주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의 삶을 통해 주님이 보여지고, 주님의 향기만 남길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며, 특별히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하옵소서(시 16:8).

말씀으로 영혼을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며, 나보다 나를 더 간절히 사랑하시는 주님이심을 다시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을 믿기에 주님의 선하신 행하심과 주권을 인정합니다.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과 아픔과 고통이 찾아올 때, 저희를 붙잡아 주시며, 그 안에 담겨있는 주님의 사랑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리하여 저 천국에서 주님을 뵈을 때까지, 이 험한 세상을 주님과 함께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끝이 없는 코로나 19로 고통받으며 신음하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막막한 현실이 너무나 크지만 이웃을 사랑으로 보듬어 줄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오직 주의 뜻이 이뤄지며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며 대적하여 세워진 헛된 것들과 계획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 뒤에 웅크리고 있는 악한 영들이 소멸되게 하옵소서. 고통받고 있는 북녘의 동포들과 지하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하시며 어서 속히 저 땅이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주님의 거룩한 땅 되게 하시고, 가장 어두운 이때 한국교회가 다시금 깨어 일어나 이 나라 이 민족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담임목사님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허락하신 목회비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도록 인도하옵소서. 새문안교회를 사랑하며 헌신하는 모든 이들 위에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새 예배당 헌당을 위해, 또한 새문안추모관 헌관을 위해 기도하며 나가오니 주님의 선한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또한 어서 속히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교제하며 봉사하는 날이 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